문화사업 역점

청교련 새해사업 확정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이하 청교련)는 2월 27일 청소년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 아래 △연수·수련·문화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자원봉사·사회운동 등 올해 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들은 청소년 수련대회, 문화기행, 눈밭축제, 어울마당, 건전한 소비문화캠페인 등 이다. 이외에 청소년 큰잔치, 종합예술경연대회, 윤리회복 실천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문화사업은 5월2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리는 제12회 청소년종합예술 경연대회.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예술적 소양을 발굴, 함양시킬 이 행사는 초·중·고등학생 총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오종욱 기자

빨간조끼 엄마들 청소년 보호

청교련 인천지부 어머니 감시단

유해환경 순찰 10개월간 1900여건 적발

정보지 감시 음란전화·원조교제 차단

인천에서 전화방, 노래방, 오락실 등 유흥업소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간석동.

이 지역에서 빨간색 조끼를 걸친 40~50대 아주머니들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 삼삼오오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들은 바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의 '어머니 감시단' 단원들이다.

어머니 감시단은 인천지역 10여개 초.중.고등학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6월 발족됐다. 현재 감시단에서 활동하는 어머니들의 수는 70여명. 이들은 매월 4~5회 이상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생활주변에 산재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들과 딸들을 보호하고 있다.

"감시활동을 나설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TV에서 '비행청소년'으로 지목한 그런 중·고교생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들이 우리의 잔소리를 선선히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2년째 청소년들을 지도해 온 박혜순(43)씨는 감시단 활동의 성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학부모들이 청소년 교화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부에서 어머니들을 청소년선도 최일선에 세운 것은 지금까지 교화시설과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온 청소년 교화사업이 이제는 시민운동으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기존의 교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 감시단의 활동은 매스컴과 지역환경 감시 등으로 구분된다. 벼룩시장, 알림방등 생활정보지를 모니터하는 매스컴 감시 활동은 080 음란전화와 10대 원조교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감시단은 10개월 동안 1천9백여건의 청소년비행 및 유해업소를 적발, 지도했다. 중·고교생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은 먼저 인천지부에 신고된다. 또 담배와 술등 청소년에 유해한 것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현장 지도등 적절한 시정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시정을 거부한 업소의 경우 인천지방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영업정지등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 지금까지 16개 업소들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미경 사무국장(청교련 인천지부)은 "청소년 문제에 일개 단체가 나서는 것보다 부모들이 앞장서는 것이 이탈 청소년 지도에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기능도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⑦

황 수 영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답사를 갈 때마다 탑 앞에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선조들의 불심이 담긴 탑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할 수 있지요."

평생을 불교유물과 함께 한 황수영 박사(80·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황 박사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답사를 다닐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고 탑과 대화를 하는 것에 있다. 사찰에 있는 유물을 돌아보기 전에 그 곳의 주인인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허락받는 것은 불자이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불자로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며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황박사는 지금도 한달에 일주일은 답사여행을 위해 집을 비운다.

사찰 답사때마다 예불·탑과 대화
평소 규칙적인 식사·충분한 수면

답사 현장에서는 청년 못잖은 호기심과 체력을 자랑하는 황 박사는 답사를 나가서도 시간맞춰 식사하고 포식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은 황 박사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평범한듯 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평생을 그렇게 맞췄고 덕분에 건강도 남부럽지 않다.

최근에는 인도 일본 중국 등 외국 불교사원에 눈을 돌렸다. 국내 답사보다 더 힘이 들터인데도 얼마 전 중국 석굴 답사를 다녀온 황박사. "힘들지만 석굴암 연구를 위해 중국의 석굴들을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이 나이에도 내가 답사를 다니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불심에 있지요. 부처님 흔적을 좇아 다니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네요."

답사를 가지 않을 때에는 동대 박물관에 있는 연구실에서 이런 저런 불상 탑 등을 연구한다.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부처님 말씀에 푹 젖어든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산책을 꼽는다.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무심의 상태로 걷는 것에 몰두하다보면 어느새 심신의 피로가 가신다.

"내 건강 비결이 뭐 따로 있겠어요. 부처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지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사찰답사를 다닐 계획입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장기기증은 아상 벗는 길"

학성선원 생명나눔법회 우룡스님 법문

살아서 하지 못했던 보시를 행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불가의 가르침을 살아서 집착을 끊는 공부입니다. 하물며 죽은 뒤의 육신에 대한 집착은 더욱 부질없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마음 한 번 돌이켜 장기기증이나 화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됩니다.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우리의 몸뚱이는 죽으면 저절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 뚱이기는 해도 모든 생명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니 생명을 나누는 보시의 정신으로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방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생명을 나누는 동체대비의 큰 보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월22일 생명나눔 캠페인 서약자 명단

화장서약(67명) 향공스님 강림이 강용주 강은주 김경임 김말숙 김모주 김미숙 김상기 김성권 김연자 김옥출 김용자 김전옥 김정영 김행지 박근득 박문용 박석열 박영자 박영희 박용자 박정식 박종일 박혜경 박희자 성관제 손괄이 손현희 송옥자 신혜선 실상화 정순애 양숙자 오정희 유정순 이난영 이덕선 이명희 이범명 이복련 이정숙 이정희 이춘지 임옥희 장영선 장영희 전봉순 정덕숙 정순애 정정숙 조인자 주경남 지선순 차현주 천미희 최광선 최덕주 최순란 최옥련 최종순 최화분 한복순 한위택 한화인 함영미 황순동

장기기증서약(25명) 인철스님 김명숙 김미영 김미향 김상남 김태오 김행자 노영호 박민영 박상희 박영희 배병구 서승일 원희진 이갑주 이명희 이양웅 이영주 이희천 정영진 정정희 정태균 조응 하선형 황순봉

〈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신나는 민속놀이 한마당

옥련청소년개발원 어울마당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원장 종인스님, 이하 개발원)은 2월 25일 아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청소년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옥련·아산지역 청소년 150여명이 참가한 '청소년민속놀이한마당'에서는 개발원 산하 청소년 동아리 화랑나눔단의 사물공연을 비롯해 닭싸움, 줄다리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팔씨름 등이 시연됐다.

개발원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27일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만해백일장 권소희양 대상

초중고생·일반인등 5백여명 참가

만해스님의 민족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3·1절 기념 만해 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20회째를 맞는 이날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님의 침묵', '천년', '강물', '손' 등을 시제로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상대 회장은 "만해스님은 어린이·청년불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항상 가르쳤다"며 "만해백일장은 그 정신을 잇는 행사"라고 말했다.

시, 시조, 산문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백일장에서 만해대상을 수상한 권소희양(양재고 3년·사진)을 비롯해 5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년〉을 주제로 영예의 만해대상과 상금 1백만을 수상한 권양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라져가는 석불을 보며 시를 썼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년

권소희(양재고교 3년)

경주 국립박물관 앞 뜰에서
목이 떨어진 석불들을 보았네

잔디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석불들
몸에 이끼가 낀 석불들

제 몸무게를 어쩌지 못해
조금씩 잔디 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네

목이 떨어진 석불들
표정이 사라진 석불들

몇 천 년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석불들

움직인이 없었네
비바람 불어와
몸의 형체를 지울 때까지,

석불들은 기다렸 것이네
연꽃 가득 새겨졌던 머소를 찾아

다시 천 년 동안을 기다렸 것이네

단 신

학부모 감수성훈련 강좌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자녀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감수성 훈련' 강좌를 마련했다. 이 강좌는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감수성 훈련'은 3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목동청소년회관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02)646-8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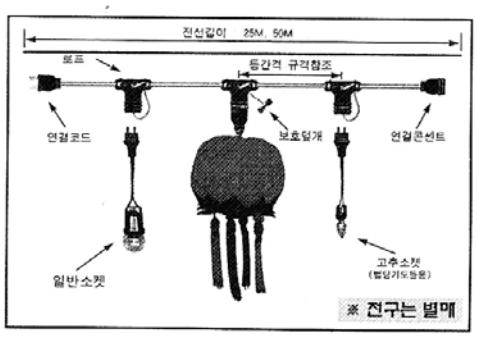
어린이법회교사 강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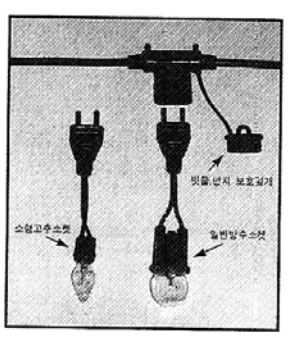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회장 지원스님)는 어린이 법회 교사를 위한 수요정기 강습회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갖는다. 조계사 제2문화교육관 2층 강의실서 열리는 강습회는 '불교아동교육' '어린이법회지도' 등으로 짜여져 있다. (02)725-2201

만해불교대학 30일 개강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지구장 김수현)는 30일 제6기 만해불교대학을 개강한다. 이번 강좌는 기초교리반과 경전반을 분리하고, 1년 2학기로 편성되는등 교육과정이 대폭 수정됐다. 경전반은 강동균교수(동아대 철학과)가 맡아, 〈정토삼부경〉을 강의한다. (051)469-6346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규 격
⊙ 등간격 : 30㎝, 50㎝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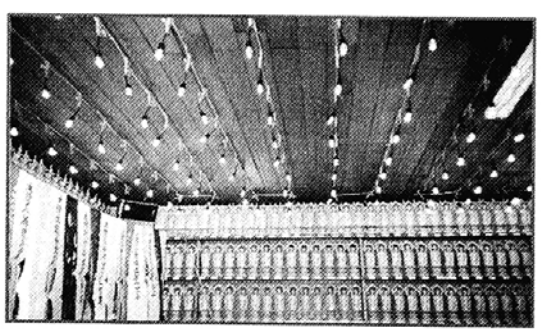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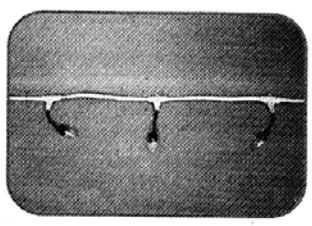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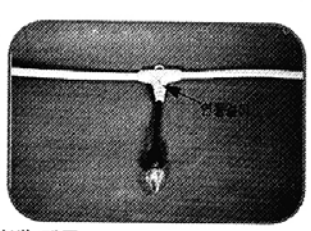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충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봉축연등·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회색) 제품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긴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